보도시점 바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 2026. 11. 17.(화)

한국수자원공사, WWF(세계자연기금)과 물·자연 통합 복원 협력 나선다

- 17일 업무협약 체결, 국제 지속가능성 공시 대응 및 기업 ESG 경영 지원
- 물관리 기술력과 자연보전 전문성 결합, ‘Water&Nature Positive’ 실천·자연기반해법 공동 추진
- 물 복원량 중심 성과에서 생물다양성·생태계서비스 복원까지, 지속가능한 물관리 모델 고도화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양승조)는 11월 17일 서울 종로구 한국WWF(세계자연기금)에서 한국WWF와 ‘물·자연 분야 지속가능성 증진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물과 자연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기업의 ESG 경영을 지원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최근 글로벌 지속가능경영의 범위는 탄소배출 저감을 넘어 물과 생물다양성, 자연자본*의 보전·회복으로 확대되고 있다. 자연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TNFD)의 권고안과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등 국제 공시 체계에서도 기업의 물·자연 관련 위험 관리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의 물관리 역시 사용량 절감을 넘어 물순환 회복과 생태계 가치 증진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 자연자본(Natural Capital): 물, 토양, 공기,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 등 인류 사회와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는 자연환경 자산과 이에 따라 창출되는 종합적인 편익·가치를 의미함.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 한국수자원공사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한 국내외 기업과 습지 복원, 누수 저감 등을 통해 사용한 물보다 더 많은 물을 자연에 돌려주는 ‘워터 포지티브(Water Positive)’ 사업

을 추진해 왔다. 이번 협약은 이러한 물 복원 활동에 WWF의 생물다양성 보전 전문성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접목해 물과 자연을 아우르는 통합 복원으로 협력 범위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 Water&Nature Positive 확산 및 공동사업 발굴 ▲ 국제 지속가능성 기준 연구 및 기업 ESG 공시 지원 ▲ 자연기반해법(NbS)을 활용한 물관리 및 생태계 복원 ▲ 생물다양성 및 자연자본 관리 체계 구축 ▲ 기후변화 대응 및 국제 협력 ▲ 공동 연구·교육 및 네트워크 확대 등을 중심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공공기관과 기업을 중심으로 추진해 온 물 복원 활동을 전문 자연보전 기관과 함께하는 협력 모델로 확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양 기관은 물 복원량 뿐만 아니라 생물다양성 증진, 생태계서비스 개선, 자연자본 가치 창출 등 물과 자연이 제공하는 종합적인 편익을 고려해 지속가능한 물관리 모델을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구자영 한국수자원공사 기획부문장은 “기후위기 시대의 물관리는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넘어 자연의 물순환을 회복하고 생태계의 건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며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한국수자원공사의 물관리 기술과 WWF의 자연보전 역량을 결합해 기업과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Water&Nature Positive 실천을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물의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관련 사진 1매(별첨). 끝.

담당 부서	신성장전략단 기후위기대응부	책임자	부 장	진성원 (042-629-2380)
		담당자	과 장	정현영 (042-629-2386)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 임 **관련 사진**



[사진] 11월 17일, 서울 종로구 한국WWF(세계자연기금)에서 구자영 한국수자원공사 기획부문장(사진 오른쪽)과 박민혜 한국WWF 사무총장(사진 왼쪽)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이날 한국수자원공사는 한국WWF와 '물·자연 분야 지속가능성 증진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